

“꿈이룸 주택 보급 청년 주거문제 해결”

김윤덕 의원 “청년들의 전북 정착 위해 중요”... 이재명 후보, 분양·임대 물량 중 상당부분 배당 공약 발표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시 갑) 의원이 “전북 꿈이룸 청년 주택 건설 보급을 통해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 해야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청년들은 지역 정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주거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면서 “청년의 전북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청년 주택 건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실천을 위한 전북지역의 구체적 방안으로 임대료 15만원 내외의 권역별

전북 꿈이룸 청년 주택 건설 보급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빈집을 활용한 청년 더불어 주택 지원과 청년문화예술인 전북 한 달 살기 지원은 확대 발전시키고 청년 부부 전세자금 이자 보전을 통한 주거 지원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주거 복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청년이 결혼과 함께 발생하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

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6년간 적립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미래행복 결혼자금 공제 지원 제도’ 운영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 청년이 타지로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주거 문제다”며 “전북 꿈이룸 청년 주택 건설 보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북의 청년이 보금자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전북의 대변관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이재명 당선, 전주의 발전”

민주 양경숙 의원, 효자동 개회 대선 출정식서 역할
송영길 당대표, 16일 삼익수영장 로타리서 집중유세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상임선대위원장이 양경숙 의원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이른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전주시 효자동 KT사거리에서 전주시 시·도의원,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운동원, 당원들과 함께 대선 출정식을 열었다.

양 의원은 출정식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후보 행정 경험과 실력 그리고 실천력을 두루 갖춘 유능한 후보”이며 “경기도지사 공약이행률 95%가 말해주듯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곧 전주의 발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선거운동 둘째 날인 16일 오전 10시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전북도당을 방문해 “2022년 대선 승리 비답, 전북에서 일으키자”라는 기치 아래 전북도당 대전환 선대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3시 50분에는 전주 삼익수영장 로타리에서 전주시를 집중유세에 함께할 예정이다.

양경숙 의원은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전주시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상임선대위원장이 양경숙 의원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이른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전주시 효자동 KT사거리에서 전주시 시·도의원,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운동원, 당원들과 함께 대선 출정식을 열고 유세에 나서고 있다.

“도민들의 올바른 선택, 대한민국 대전환 주도”

안호영 의원, 봉동서 첫선거운동
전주서 미래경제단과 합동 유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공식적인 제20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북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완주군 봉동읍 완주교 사거리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안 의원은 “실력 실적 실천으로 준비된 후보는 이재명 뿐이다”며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20대 대선에서 완주군민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올바른 선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침 출근길에는 민주당 완주군 지역위 소속 당원 30여명이 대거 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전북도당 선거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오후 2시부터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전북도당 미래경제단 유세에 합류했다.

전주 유세에서는 중앙당 미래경제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5일 오전 7시 30분 완주군 봉동읍 완주교 사거리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장인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 전주시에 8000(80% 투표율, 90% 지지율)을 통해 4기 민주당부 출범에 주역이 돼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또한, 오후 4시부터는 봉동 둔산공원 사거리에서 도당 유세팀과 함께 선거운동을 펼쳤다.

안호영 의원은 “코로나, 기후위기, 양극화 등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위기를 돌파할 통합대통령,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선택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완주군에서는 민주당 완주군 선대본부 출정식과 함께 봉동농협, 진안읍 터미널 사거리, 무주 안성시장 사거리, 장수 장수시장 등지에서 대대적인 이재명 지지 선거운동이 진행됐다.

/유호상 기자

민주 정읍·고창 선대위
대통령선거 출정식 개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정읍명동리 앞 사거리와 고창읍터미널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윤준병 상임선대위 원장(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읍지역 강광·김생기 공동선대위원장, 최종필·이순자 상임총괄본부장과 고창지역 박우영, 고양규 상임총괄본부장 등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고창 선거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선 승리의 기쁨이 될 것을 결의했다.

정읍·고창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그 자체인 전북, 그중에서도 민주주의의 효시, 동학농민 혁명의 발상지인 정읍과 고창이 투표율 80%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상 득표율 90%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다.

윤준병 상임선대위원장은 출정식 유세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국민을 섬기는 민주당부를 재창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검찰독재로 퇴행하는 나를 결정하는 선거”라면서 “우리 자신과 지역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를 위해 제4기 민주당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앞에 놓인 크고작은 위기에 준비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 “정읍과 고창에서부터 일어난 바람이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의정 증계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역할에 충실

환복위, 완주 떡메마을 찾아 현장의정활동

도 제3호 생활치료센터도 찾아 애로사항 청취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5일 완주군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완주떡메마을’과 전북도 제3호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먼저,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완주떡메마을’을 방문해 운영 현황 및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시설을 둘러봤다.

‘완주떡메마을’은 지난 2009년 설립 이래 장애인들 고용, 떡가공 생산·판매와 더불어 장애인 직무지도 및 재활상담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어 위원들은 완주군 이서면 소재 전북도 제3호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업무보고를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며, 센터내 주요시설을 점검하고, 특히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 및 방역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현재 전북도 제3호 생활치료센터는 지역 내 코로나9 환자



발생 시 격리 치료가 가능하도록 167실, 242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57개반 총 35명으로 구성된 지원단 이 교대근무 및 상주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명연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잘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 관리·운영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환경복지위원회는 관련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전북도 보건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소규모 학교 통합교육 적극 실행을”

교육위, 도교육청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5일 전라북도교육청의 올 한해 전북교육의 방향과 예산 집행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정책공포관,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실 순으로 실시됐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은 6년 내내 친구가 한 명인 곳도 있다”며 “이는 아이들의 학습 기회 축소는 물론 사회적응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며 소규모학교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소규모학교들의 통합교육을 활발히 하고 교육가버너스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소규모학교가 있는 지역의 정주 요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률 시행의 이해를 돕고, 예방할 수 있는 강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이해를 높여달라”고 제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현재 추진 중인 (가칭) 전북교육박물관에 대해 “유물 확보에 지나친 집중보다는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 시 소규모 학교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계획 중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선거운동 시작 공정한 관리 만전”

문 대통령, “안전 대선
빈틈 없도록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여야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별도 투표권을 보장한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지와 투·개표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 선거를 치러 해오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런 점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는 사전투표일과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확진자 및 격리자들을 위한 투표소를 추가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뉴스

한여농 전북연합회 등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전북도연합회 회원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존중되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업정책으로 농업인의 삶을 질적으로 비할 대령이 필요하다”며 “지역 한농연·여농연 20여 회원들은 농업인과 함께 하는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 후보는 이웃과 마



음을 살리고 지방을 살려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신념으로 정치야망을 떠나 실용적 가치로 국민의 삶을 향상할 가장 확실한 대통령 후보에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주택관리사협 전북, “이재명, 입주민 삶 실현 자질 겸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안근용)는 15일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과 입주민들의 안전한 쾌적한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국가 지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식에는 전북 도내 주택관리사 785명을 대표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안근용 전북도회장은 “공동주택관리의 공공성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 등 주거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시기에 국민들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입주자들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 주민 협동 공동체 문화형성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경제발전과 입주민들의 안락함과 행복함을 실현하는 주거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